

## 성 · 세대 · 성격유형에 따른 정서 반응양식의 차이\*

민경환 · 김지현 · 황석현 · 장승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정서 체험시의 주관적 자기보고 자료에 근거하여 상이한 집단들간의 정서성을 비교한 것이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성차와 세대차이가 정서의 체험, 표현, 및 생리적 각성 정도의 세 측면 각각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며, 부차적인 목적으로서 정서성과 관련된 성격 변인 측정도구들에서 나타난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도구는 정서성의 집단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고안된 Scherer와 Wallbott(1994)의 질문지와, 정적 및 부정 정서성 척도, 정서 표현성 척도, 및 자아탄력성 척도로 구성되었다. 결과의 분석은 정서유발 선행사건에 대한 분석, 정서 체험의 빈도, 지속시간, 강도에 대한 주관적 측정치, 정서의 생리적 증상, 정서 표현 반응, 개인차 변인들에 대한 정서반응 분석, 및 가족단위에 대한 추가분석 등의 다양한 측면에 대하여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서성에서 유의미한 성차와 세대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지해주었다. 즉, 정서 체험의 빈도, 지속시간, 강도에 대한 분석에서 뚜렷한 세대 차이가 언어졌고, 생리적 증상보고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기쁨, 슬픔, 분노, 공포 등의 정서에서 유의미한 성차와 세대 차이가 언어졌다. 또한 접근·회피 행동, 비언어적 행동, 유사언어적 행동 및 언어적 행동 등의 정서표현에서 유의미한 성차와 세대차가 나타났다. 성격변인 측정치들과 가족단위 분석에서 얻어진 결과가 언급되었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정서(emotion)는 심리학적 구성개념으로서 여러 이론가들에 의하여 하나의 증후군(syndrome)으로 정의되어 왔다(Lazarus, Averill & Opton, 1970; Averill, 1980; Plutchik, 1980; Kleinginna & Kleinginna, 1981). 정서의 구성 요소들은 특정한 정서를 유발한 선행 상황에 대한 평가, 정서 체험시의 생리적 변화, 운동 표현성, 준비된 행동 경향성 등을 포함하는 동기적 측면, 주관적 감정 상태, 인지적 평가 등이며, 각각의

구성 요소들은 인간의 적응을 위한 기능적 중요성을 갖는다(Scherer, 1984).

정서의 보편성(universality)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의 입장과는 대조적으로, 정서 체험의 집단간 변산성(variation)에 관심을 두었던 여러 정서 연구자들은 앞에서 언급된 것들과 같은 정서의 다양한 측면에서 얻어진 반응 패턴들에 대하여 성별이나 연령, 혹은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집단 구성원들을 비교함으로써 집단간 정서성(emotionality)의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상이한 집단 구성원들간에 정서 체험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은 생리학적 측면에서의 연구

\* 이 논문은 1996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Levy, 1984; Frijda, 1986; LeDoux, 1986; Panksepp, 1991)나 얼굴 근육 패턴 연구(Izard, 1971; Ekman, 1981), 정서적 사건 유형의 약호화에 대한 연구(Levy, 1973), 정서의 평가를 다룬 연구들(Borke & Su, 1972; Scherer, 1988; Scherer, Wallbott, Matsumoto, & Kudoh, 1988; Matsumoto, 1989; Markus & Kitayama, 1986; 1991), 정서의 행동적 표현에 대한 연구들(Izard, 1971; Ekman, 1987), 정서의 주관적 경험을 다룬 연구들(Scherer & Wallbott, 1986; 1988; 1994), 정서의 명명(labeling)에 대한 연구(Matsumoto, 1992), 정서의 강도, 정서 판단, 정서의 표현 규칙 및 표현성에 대한 자기-보고 연구(Matsumoto, 1993), 정서를 유발하는 선행 사건들에 대한 연구(Boucher & Brandt, 1981), 정서관련 사건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서의 차이에 대한 연구들(Boucher, 1983; Stipek, Weiner, & Li, 1989; Mauro, Sato, & Tucker, 1992) 등을 통해서 지지되어 왔다.

정서 체험에서의 성차는 문화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성차와 결부되어 연구되어 온 주제이다. 성별(gender)에 따른 차이는 정서 경험의 내용과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주로 성 고정관념(gender stereotype)연구의 맥락에서 확인되었다(Birnbaum, Nosanchuk & Croll, 1980). 따라서, 대부분의 정서 연구자들은 남성과 여성의 정서성에서 일관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Tangney, 1990; Stapley & Haviland, 1989).

Kring과 Gordon(1998)은 지금까지의 정서 연구들을 개관하고 성차와 관련된 연구 가설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는데, 첫째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정서를 더 많이 표현(express)하고, 둘째로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정서를 더 강렬하게 체험(experience)하는 것으로 가정되며, 마지막으로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정서를 체험할 때 더 강한 생리적 반응(physiological response)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정서적 반응양식의 차이에 관한 위와 같은 가설들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정서성에서의 성차와 관련하여 지적될 수 있는 한 가지 문제는 정서의 표현성에 대한 것이다. Kring과

Gordon(1998)이 개관한 연구 결과들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서의 표현은 표현 규칙(display rule)이나 타인의 존재 등과 같은 문화적,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정적 정서는 더 많이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한 데 비해서 부정적인 정서들은 되도록 표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반적인 기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Kring 등(1998)은 지금까지 정서 연구들의 대부분이 사회적 맥락을 고려함이 없이 실험실 상황에서 정서유도 기법을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정서를 유발시킨 후에 그러한 정서의 표현 반응을 연구한 사실을 비판하였다. 실험실 상황에서 유도된 정서의 표현은 안면 표정 근육 측정, 표정 관찰 후 약호화(coding), 판독자의 판단, 정서표현성에 대한 설문지 등의 방법들을 가지고 분석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러한 지표들에서는 여성의 표현성이 남성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Gross와 John(1998)은 남성과 여성의 정서 표현 유형을 다섯 가지 유목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여성이 정적 정서 표현과 부정 정서 표현 모두를 더 잘 하고 정서를 체험하는 강도에 있어서도 여성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반면에 남성들은 더 많이 정서를 차폐(masking)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신의 정서적 표현에 대한 확신(expressive confidence)에서는 남성과 여성간에 차이가 없었다.

남성과 여성의 정서성의 차이에 관한 두 번째 질문은 정서 체험 시 남성과 여성의 느낌(feeling)과 표현(expression)이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Fabes와 Martin, 1991). Gottman과 Levenson(1993)은 그들이 “담쌓기(stonewalling)”로 명명한 현상에 대하여, 주관적으로는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감정상태에 수반되는 표현적 징후를 외부적으로 전혀 나타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들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주로 남편들에게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Ekman(1992)은 여성이 정서적 표현을 많이 하는 데 비해서 남성은 정서 체험에 비해서 적은 표현만을 하는 경향성이 있음을 밝혔으며, 발달적 관점에서의 연

구들도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가 정서의 표현에 대한 서로 다른 정서적 표현 규칙들을 학습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Cichetti & Hesse, 1982; Dobrowski, 1977). 하지만 정서의 체험과 표현이라는 양 측면 모두에서 광범위한 개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Kring과 Gordon (1998)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정서의 체험과 표현에서의 성차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혼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한편, 남성과 여성의 정서성에서의 차이에 관한 성 고정관념 연구들의 문제점을 개관한 Fabes와 Martin (1991)은 정서성이 연령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연령에 따른 정서성의 차이에 관심을 둔 대부분의 연구들은 상이한 발달 단계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왔지만(Cichetti & Hesse, 1982; Dobrowski, 1977), 성인기 동안에 나타나는 정서성의 변화 경향을 검증하고자 한 연구들도 존재한다(Gurin, Veroff, & Feld, 1960; Wilson, 1967; Diener, 1984). 성인들의 연령 차이에 따른 정서성에 관심을 둔 연구들을 통해서, 청년 집단이 노인 집단에 비해 더 많은 행복감을 보고한다는 결과(Diener, 1984), 청년 집단이 정적 정서성과 부정 정서성 모두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는 결과(Bradburn, 1969; Braun, 1977; Campbell, 1981),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정적 정서성과 부정 정서성 수준이 모두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Veroff, Douvan, & Kulka, 1981), 행복감에 있어서 연령 증가에 따른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Gaitz & Scott, 1972; Campbell, 1981; Stock, Okun, Haring, & Witter, 1983) 등의 다양한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이처럼 성인들의 경우에도 연령 차이에 따라서 정서성에서의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하여 Shaver, Schwartz, Kirson과 O'Connor(1987)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개인이 체험하는 정서와 표현하는 정서가 문화적, 상황적 맥락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Brickman, Coates, 및 Janoff-Bulman(1978)의 주장에 따르면, 연령에 따른 차이는 적응(adaptation)이나 습관화(habituation)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즉,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더 많은 정서적 사건을 접하게 되고, 그러한 정서 체험들에

반복 노출(repeated exposure)됨에 따라서 정서적 생활사건들에 대한 습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낮은 강도의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Diener, Sandvik, 및 Larsen(1985)은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공유한 세대의 정서적 반응강도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동년배 효과(cohort effect)와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Diener, Sandvik, 및 Larsen(1985)은 대학생과 그들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정서체험 측정 설문지를 사용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정서 체험의 강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음을 밝혔는데, 이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강렬한 정서를 체험하고, 20~29세의 연령 범위를 갖는 자녀 세대가 50~68세의 부모 세대보다 더 강한 정서를 체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자들은 연령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이러한 정서성의 차이가 첫째, 생물학적인 차이, 둘째, 문화적 기대(cultural expectation)에 따른 집단 차이, 셋째, 각 집단 구성원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정서관련 생활 사건(life events)에서의 차이 등의 세 가지 원인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라고 논의하였다.

즉,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자녀 세대의 젊은이들은 자율신경계의 각성 수준이 부모 세대보다 더 높을 수 있다. 또한 정서 반응에 대한 기대 수준에서 세대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 나이든 부모 세대들은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하며 따라서 자녀 세대에 비해 덜 감정적이어야 할 것이 기대된다. 부모 세대는 사회적 기대에 따라서 자신의 정서적 반응을 억누르는데 비해서, 자녀 세대는 자신의 정서 반응을 증폭시키는 것을 일종의 대인관계 전략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지적되었다. 정서성에서 세대 차이가 나타나는 또 다른 원인으로서 Diener 등(1985)은 정서적인 생활 사건(life event)의 체험에서의 차이를 지적하였는데, 이들 연구자들은 젊은 세대가 다양한 정서들과 관련된 사건들에 자주 노출되는데 비하여 부모 세대들이 경험하는 생활 사건들은 정서적으로 단조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서 유발사건에서의 차이가 세대에 따른 정서성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라고 설명하였다.

연구 목적. 성차와 세대차를 중심으로 정서 체험과 표현, 및 생리적 반응에 관한 주관적 보고를 통해 수집된 정서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지표들을 집단별로 비교함으로써 정서성의 차이를 확인하고 그 원인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본 연구의 부차적인 목적은 정서 체험에서의 차이가 개인차 변인에서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서와 관련된 개인차 변인인 정서 표현성(EES; Emotional Expressivity Scale), 정적 및 부정 정서성(PANAS; Positive Affect & Negative Affect Schedule), 자아 탄력성(Ego-Resiliency Scale) 등의 성격 변인 측정 도구들을 연구에 포함시킴으로써 정서 체험의 내용과 각 성격 변인들간의 관련성을 살펴볼 것이다.

## 방 법

### 피험자

서울대학교에서 '인간관계의 심리학'과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는 132명(남자 68명, 여자 64명)의 학생들과 부모님들(아버지 86명, 어머니 9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거나 응답이 불가능한 경우 및 불성실하게 답한 사람을 제외한 총 312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학생들은 17세부터 26세까지의 연령 범위 내에 있었으며 평균 연령은 20.3세였고(SD=1.91), 부모님의 연령은 39세부터 77세까지의 범위에 걸쳐 있었으며 평균은 49.9세(SD=4.97)였다.

### 도 구

질문지의 처음 부분에는 Scherer와 Wallbott(1994)가 개발한 정서 경험의 자기-보고 질문지가 한국어로 번안되어 사용되었는데, 본 연구에는 기쁨, 슬픔, 공포, 분노의 네 가지 기본 정서들이 포함되었다. 각 정서에 대한 질문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의 유발 선행 사건(antecedent event) 항목은 네 가지 정서 각각에 대해 상단에 해당되는 특정 정서의 명칭을 제시하고, 가장 최근에 해당 정서를 경험하였던 상황이나 사건을 될 수 있는 한 자세히 기술하도록 하였으며 선행 사건에 대해서는 개방형으로 답하도록 하였다.

정서 체험의 빈도, 지속시간, 강도에 대한 주관적 느낌(subjective feeling)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지는데, 즉 특정 정서가 언제 경험된 것인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얼마나 그 정서를 강렬하게 느꼈는지를 묻는 질문에 답하게 했다. 피험자들은 네 가지 선택지 중 하나에 답하도록 요청되었다. 정서를 언제 경험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며칠 전(1)', '몇 주 전(2)', '몇 달 전(3)', '몇 년 전(4)'으로 답하고, 정서의 지속 시간을 묻는 질문에는 '몇 분 동안(1)', '한 시간 가량(2)', '몇 시간 동안(3)', '하루 이상(4)'으로 답하게 했다. 정서 강도에 대한 질문에는 '그다지 느끼지 않았다(1)' 부터 '매우 강하게 느꼈다(4)'까지 중 하나를 골라 답하도록 하였다.

생리적 증상(physiological symptoms)에 대한 자기-보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신체적 증상들에 관한 11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특정 정서를 느꼈을 때 경험하였던 모든 항목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항목들은 생리적 반응의 특성에 따라서 발산적 각성(ergotropic arousal), 보존적 각성(trophotropic arousal), 및 체감 온도(felt temperature)의 세 유목 각각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구분은 Scherer와 Wallbott(1994)의 연구 방법을 따른 것이다. 발산적(ergotropic)인 생리적 각성상 태란 호흡 변화, 심박 증가, 근육의 긴장이나 떨림, 발한 등의 증상을 포함하며, 교감신경계의 활성화와 연관되어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격-도피(fight-flight) 반

1) 특정 정서를 경험할 때 느끼는 신체적 반응들을 연구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내성적인 주관적 보고가 중요하고, 피부 전도, 심박률, 호흡 변화 등의 직접적인 생리적 측정치들과 피험자의 자기-보고 간에 높은 상관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Plutchik & Kellerman, 1989), 본 연구에서는 실제 측정을 통해 나타나는 생리적 각성 정도의 차이보다는 특정 정서를 체험할 때의 주관적인 생리적 각성 정도에 대한 자기-보고(self-report) 자료를 수집하였다.

응에 해당된다. 이에 비해서 보존적(trophotropic)인 생리적 각성상태란 부교감신경계의 활성화와 연관되는 것으로서 보존-위축(conservation-withdrawal) 반응에 해당되며, 목이 메임, 속이 좋지 않음, 울거나 흐느낌 등의 증상을 포함한다. 체감 온도(felt temperature)는 춥거나 떨림, 따뜻하고 기분 좋은 느낌, 뜨겁고 불이 달아오름 등의 생리적 반응을 경험하였는지를 알아본 것이다.

표현적 반응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접근-회피(approach-withdrawal) 행동, 비언어적 표현 행동(nonverbal expressive behavior), 유사언어적 행동(paralinguistic behavior), 및 언어적 표현 반응(verbal expressive behavior) 등의 반응들에 대한 응답을 조사하였다. 접근-회피 행동이란 특정한 정서를 느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행동을 하였는지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회피하는 행동을 보였는지 여부를 응답하게 한 것이다. 비언어적 표현 행동은 ‘웃거나 미소지었다’, ‘울거나 흐느꼈다’, ‘목소리가 변했다’, ‘몸짓에서 변화가 있었다’, ‘표정변화가 있었다’ 등을 포함하는 것이고, 유사언어적 행동에는 억양의 변화, 말을 잘 못하는 것, 말하는 속도의 변화 등이 해당되며, 언어적 표현 반응으로는 ‘조용히 침묵하였다’, ‘한두 문장을 말했다’, ‘길게 이야기했다’ 등의 항목들이 해당되었다.

성격 변인들을 측정하는 네 가지 척도들이 연구에 포함되었는데, 이 척도들은 정서 경험과 관련된 성격 변인을 측정하는 도구들이다. 먼저, 정적 및 부정 정서성 측정 척도(PANAS;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는 Watson, Clark과 Tellegen(1988)이 개발한 척도로서, 정적인 정서를 측정하는 문항 10개와 부정적인 정서 경험에 관련된 문항 10개를 포함하고 있다. 이 척도는 다양한 시간 지시를 주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반형(general form of PANAS)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응답자들은 정서와 관련된 각각의 형용사들에 대해서 그러한 감정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1)’부터 ‘항상 느낀다(7)’까지의 7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정서 표현성 척도(EES; Emotional Expressivity Scale)가 포함

되었다. 이 척도는 Krings, Smith 및 Neale(1994)이 개발한 것으로, 이주일 등(1997)의 연구에서 번안하여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 척도는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항들의 내용은 본인 자신이 지각하는 정서 표현성의 정도(예: 나는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와 이에 대한 타인의 평가(예: 다른 사람들은 나의 감정을 잘 읽을 수 있다)를 포함하고 있으며,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정도를 ‘전혀 아니다(1)’에서부터 ‘항상 그렇다(7)’까지의 7점 척도 상에 응답하게 하는 것이다. 자아 탄력성 척도(Ego-Resiliency Scale)는 외적/내적 스트레스에 대해 유연하면서도 지혜롭게 적응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Block(1991)이 개발한 도구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자아 탄력성은 외부적 및 내부적 스트레스에 대해 유연하면서도 지혜롭게 적응하는 능력을 일컬으며 구체적으로는 개인이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자신의 수준에 맞게 자기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성격 차원의 개념이다(Block, 1991).

## 절 차

응답자들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해 주고, 설문지의 첫 번째 장에 제시되어 있는 지시문을 천천히 읽어 주었다. 피험자들은 자신의 정서 체험에 대해 5분 정도 회상하고 질문에 답하였는데, 질문지 작성에 필요한 시간은 약 40분에서 1시간 정도였다. 설문지 작성이 끝나면 질문에 답하고 700원 상당의 학용품들 사례로 지급하였다.

부모님들의 설문지는 자녀들의 학업 이수에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학생 각자가 자신의 부모님들께 설문지 작성을 요청하여 완성된 설문지를 실험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부모님들께 배포된 설문지에는 별지에 연구 목적에 대한 설명과 감사의 글이 포함되어 있었다. 부모님들의 설문지 작성에는 약 한 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 결과 및 논의

### 정서 유발 선행 사건에 대한 분석

정서를 유발하는 선행 사건들이 성별, 세대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피험자들의 반응을 유목화하여 각 유목에 따른 반응빈도의 백분율을 성별, 세대로 비교해 보았다. 피험자들에게 개방형 질문을 제시하였으므로, 응답내용에 대한 분석은 Wallbott와 Scherer(1994)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유목(category)들에 근거하여 연구자들의 합의에 따라 설정되었다. 피험자들의 응답에서 얻어진 선행사건 유목들의 명칭과 각각의 유목에 해당되는 반응빈도 백분율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을 통해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밀접한 관계”에 의해서 “기쁨”, “슬픔”, “분노” 등의 다양한 정서경험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밀접한 관계로 유목화된 선행 사건들은 대개 가족, 친구, 연인 등과의 사건들로,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정서를 체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대간에 주목할 만한 차이가 눈에 띄는데, 자녀세대의 경우 밀접한 관계에서 얻은 “기쁨” 경험(대개 연인이나 친구관계에서 오는)의 보고(남=20.6%, 여=28.6%)가 많은데 비해 부모세대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보고(부=4.7%, 모=4.3%)만을 보였다. 반면 부모들은 밀접한 관계에서 비롯된 “분노” 경험(대개 부부나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오는)이 자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표 1. 정서유발 선행사건의 유목별 빈도 백분율

정서유발 선행사건	기쁨			슬픔				분노				공포				
	남*	여**	부	모	남	여	부	모	남	여	부	모	남	여	부	모
1. 새로운 사건	2.9	11.1		2.1	1.5		2.4					3.6				2.6
2. 밀접한 관계	20.6	28.6	4.7	4.3	11.8	12.5	8.2	10.8	14.7	10.9	21.7	25.8		3.1		3.4
3. 사회적 관습												1.2				1.3
4. 만남	14.7	11.1	2.4	4.3	1.5	6.3		1.2								1.1
5. 영원한 이별					11.8	10.9										
6. 죽음			2.4		11.8	10.9	36.5	28.0					4.4	7.8	2.6	8.0
7. 자신의 몸과 마음	1.5	3.2	2.4	2.1	1.5	3.1	2.4	5.4	2.9				1.5	1.6	10.3	5.7
8. 타인의 몸과 마음	1.5		1.2	5.3	20.6	12.5	17.6	20.4	2.9	1.6	1.2		1.5		6.4	11.5
9. 표면적 상호작용	1.5					1.6	3.5		5.9	4.7	1.2	2.2	1.5	1.6		
10. 본인의 성공, 성취	39.7	28.6	21.2	7.4	2.9	10.9	1.2			3.1	2.4	1.1	1.5	3.1		
11. 타인의 성공, 성취	2.9	1.6	49.4	59.6	1.5		7.1	8.6			3.6	1.1				1.1
12. 초자연적 현상, 꿈				1.2					1.5				13.2	7.8	5.1	5.7
13. 위험				11.1				1.1	2.9				19.1	23.4	17.9	27.6
14. 교통문제									2.9		2.4		1.5		7.7	9.2
15. 새로운 상황	1.5	1.6	2.4	3.2	2.9	4.7	2.4						7.4	7.8	2.6	1.1
16. 불공정/불인정					1.5	3.1	1.2	4.3	7.4	9.4	9.6	10.8	1.5			1.3
17. 새로운 소식	2.9			1.1	5.9		4.7	4.3	1.5	3.1			4.4	3.1	1.3	1.1
18.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					8.8	1.6	2.4	3.2	4.4			3.2	1.5	3.1	1.3	1.1
19. 남에게 해를 끼침						3.1	1.2		1.5	1.6	1.2	2.2	1.5			2.6
20. 남에게 해를 입음						1.6	1.2	4.3	19.1	20.3	14.5	9.7		3.1		1.1
21. 타인의 부정적 특성						3.1			10.3	12.5	3.6	9.7				
22. 비판을 받음					1.5	3.1	1.2	1.1	4.4	15.6	8.4	8.6		1.6	2.6	1.1
23. 물건 획득		2.9	4.8	1.2	2.1			1.1			1.2	2.2				1.1
24. 혼자 있는 상황				1.2		1.5	1.6						14.7	6.3	3.8	
25. 당황									2.9	1.6	1.2	1.1	1.5	1.6		
26. 사회적 상황	1.5				4.4	1.6	1.2		10.3	9.4	15.7	11.8		3.1	6.4	2.3
27. 기타	5.9	7.9	4.7	4.3	7.4	3.1	2.4	4.3	4.4	4.7	6.0	8.6	20.6	18.8	15.4	12.6
28. 무응답		1.6	5.9	3.2	1.5	4.7	2.4	3.2		1.6	1.2	2.2	2.9	3.1	9.0	3.4

\* 남 = 남학생 \*\* 여 = 여학생

게 나타났다(부=21.7%, 모=25.8%, 남=14.7%, 여=10.9%). “영원한 이별”로 분류된 사건들은 자녀들의 경우 만 “슬픔”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변사람들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의 경험은 자녀세대에 비해 부모세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타인의 몸과 마음” 항목은 주변 사람들의 건강상태나 정서상태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슬픔”을 경험한다는 보고도 높게 나타났다(남=20.6% 여=12.5% 부=17.6% 모=20.4%). 이 항목은 “죽음” 항목과 함께 “슬픔”을 유발하는 선행사건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본인의 성공과 성취, 타인의 성공과 성취로 인한 “기쁨”의 경험은 가장 뚜렷한 세대차를 보인 항목들로 자녀들은 자신의 성공과 성취를 통해 “기쁨”을 경험한다는 보고(남=39.7%, 여=28.6%)가 매우 많은 반면, 부모들은 타인의 성공과 성취(아버지의 경우는 자식들의, 어머니의 경우는 자식들과 남편의)를 통해 “기쁨”을 경험한다는 보고(부=49.4%, 모=59.6%)가 매우 많았다. 본인의 성공, 성취로 인한 “기쁨”의 경험은 부모세대 안에서 성차를 보이는데 부모세대가 전반적으로 자녀세대에 비해 보고율이 낮지만 아버지의 경우 어머니에 비해 높은 보고(부=21.2%, 모=7.4%)를 보여 남자의 경우는 나이가 들고서도 자신의 성취에 의해 “기쁨”을 경험하는 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도 초자연적 현상이나 꿈, 위험한 상황,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기타로 처리된 공포를 소재로 한 영상물 등이 “공포” 경험의 주요 선행사건들로 나타났으며, 타인의 가해, 부정적 특성, 비판 등이 앞서 지적된 밀접한 관계와 불공정/불인정 항목과 함께 “분노” 경험의 주요 선행사건들로 나타났다. 사회적 상황으로 인한 “분노”의

경험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 경우는 ‘경제의 파탄으로 인한 부도’와 같은 사건을 포함하는 등 최근의 IMF 체제와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결과라 하겠다.

### 정서체험의 빈도, 지속시간, 강도에 대한 주관적 측정치 분석

#### 정서체험의 빈도.

특정 정서 유발 사건을 기술할 때 응답자들에게 가능한 한 최근에 경험한 사건들을 기술할 것을 요구했으므로 ‘언제(얼마나 전에) 그와 같은 경험을 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해당 정서의 빈도로 간주할 수 있다(Scherer, 1986; Scherer & Wallbott, 199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정 정서를 유발했던 사건에 대한 시간적 간격을 정서경험의 빈도로 간주하여 그 결과를 해석하였다. 응답자 집단별 반응빈도의 백분율이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점수들은 각 선택지에 응답한 응답자의 수를 각 집단 응답자 총수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정서들이 경험되는 빈도를 비교하기 위해 집단간의 순위에서의 차이를 비교하는 Mann-Whitney U 검증을 이용하였다.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시간 간격이 등간 척도가 아닌 서열척도이기 때문에 정서 경험의 빈도와 다음절에서 다룰 정서 지속시간의 경우에 한하여 비모수적 검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유의미한 성차와 세대차가 발견되었다. 먼저, 성차에서는 “분노”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분노”를 더욱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 다른 정서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밝혀지지 않았다. 세대내의 성차를 비교한 결과, 자녀세대에서는 아무런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

표 2. 정서 사건의 발생 간격별 빈도 백분율

정서사건 발생사건	기쁨				슬픔				분노				공포			
	남	여	부	모	남	여	부	모	남	여	부	모	남	여	부	모
며칠 전	35.3	33.3	10.7	17.0	27.9	28.6	9.5	16.3	33.8	43.8	16.9	28.0	23.9	15.9	18.1	18.1
몇 주 전	22.1	27.0	23.8	14.9	26.5	31.7	21.5	16.3	29.4	29.7	16.9	30.1	13.4	33.3	16.6	13.2
몇 달 전	29.4	22.2	21.4	29.8	23.5	20.6	20.2	30.4	19.1	14.0	37.3	26.9	32.8	23.8	30.6	22.9
몇 년 전	13.2	17.5	44.1	38.3	22.1	19.1	48.8	35.9	16.2	12.5	28.9	15.1	29.9	27.0	34.7	45.8
무응답								1.1				1.5				

반면, 부모세대에서 어머니들이 아버지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빈도의 “분노”를 보고하였다( $p < .01$ ). 정서 유발 선행사건들의 빈도표를 참조하면 어머니들은 주로 밀접한 관계, 즉 가족관계에 의해서나 불공정/불인정으로 인한 “분노”의 경험이 타 집단에 비해서, 그리고 타 유목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는데, 선행 사건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고려할 때 남편과 자녀들 혹은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분노”를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모든 정서에서 유의미한 세대차가 나타났다. 즉 자녀세대가 부모세대에 비해 “기쁨”( $p < .001$ ), “슬픔”( $p < .001$ ), “분노”( $p < .001$ ), “공포”( $p < .05$ )의 네 정서를 더욱 빈번히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들은 “공포”를 제외한 모든 정서에서 아버지들보다, 여학생들은 모든 정서에서 어머니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빈도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를 느끼는 전반적인 빈도에서 세대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20-29세의 집단이 50-68세 집단보다 더 강한 정서성을 보인다는 Diener, Sandvik, 및 Larsen(1985)의 연구결과와도 합치되는 결과이다. Diener 등(1985)은 자녀들이 즐거운 사건과 괴로운 사건 모두에 더 자주 노출되어 있는데 비해서 부모들이 경험하는 생활사건들은 정서적으로 단조로운 것일 수 있다고 논의하였는데, 본 연구결과는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 정서체험의 지속시간

해당 정서를 얼마나 오랫동안 느꼈는지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을 집단별로 비교하기 위해 각 선택지에 대한 반응 빈도 백분율을 표 3에 제시하였다. 점수들은 각 선택지에 답한 응답자들의 수를 각 집단

응답자 수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개별 정서들의 지속시간을 집단별로 비교하기 위해서 응답자들의 반응 선택지에 대한 빈도에 대하여 Mann-Whitney U 검증을 이용하여 응답자 집단들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성차에서는 “공포”의 경우에만 여성이 남성보다 지속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으나( $p < .05$ ), 다른 정서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세대내의 성차를 비교한 결과,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에게서 “슬픔”( $p < .09$ ), “분노”( $p < .07$ ), 그리고 “공포”( $p < .05$ )의 지속시간이 비교적 긴 경향성 내지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했다. 이러한 성차는 부모집단에서 얻어지지 않았으므로, 정서의 지속시간에 한해서는 단지 자녀집단에서 유의미한 성차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가지 특기할 만한 점은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에 비해 “분노”를 더 자주 경험하지만 지속기간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대차를 살펴보면, 모든 정서에서 부모세대가 자녀세대보다 유의미하게 긴 지속시간( $p < .001$ )을 보였다. 특히, 아버지-남학생 비교에서는 모든 정서에서, 어머니-여학생 비교에서는 “슬픔”을 제외한 모든 정서에서 부모세대가 더욱 긴 정서지속 시간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의 경험 빈도와도 연관되는데, 즉 젊은 세대가 나이 많은 세대에 비해 정서 경험을 더 자주, 짧게 한다고 말할 수 있다.

#### 정서 강도

특정정서를 얼마나 강하게 느꼈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였으며,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체험된 정서의 강도는 정서 체험의 빈도나 지속시간과는 달리 “그다지 느끼지 않았다(1점)”에서부터 “매우 강하게 느꼈다(4점)”까지의

표 3. 정서 지속 시간별 빈도 백분율

정서 지속 시간	기쁨				슬픔				분노				공포			
	남	여	부	모	남	여	부	모	남	여	부	모	남	여	부	모
몇 분 동안	2.9	12.7	5.9	4.3	10.3	3.2	7.1	6.5	20.6	14.1	13.3	10.9	40.3	22.2	27.4	21.4
한 시간 가량	17.6	7.9	3.5	6.4	17.6	7.5	3.5	3.3	19.1	10.9	3.5	5.4	25.4	28.6	9.6	9.5
몇 시간 동안	33.8	22.2	12.9	7.4	25.0	30.2	14.1	18.5	32.4	34.4	15.7	20.7	22.4	22.2	20.5	23.8
하루 이상	45.7	57.2	77.7	81.9	47.1	57.1	75.3	71.7	27.9	40.6	67.5	63.0	11.9	27.0	42.5	45.3



표 4. 성, 세대에 따른 정서 강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기쁨				슬픔				분노				공포			
	남	여	부	모	남	여	부	모	남	여	부	모	남	여	부	모
정서 강도	2.79	3.13	3.32	3.48	2.88	3.11	3.27	3.45	2.96	3.11	3.17	3.18	2.72	2.73	2.82	3.12
	(.78)*	(.79)	(.76)	(.68)	(.82)	(.83)	(.81)	(.73)	(.89)	(.84)	(.95)	(.81)	(.87)	(.81)	(.86)	(.88)

\* 괄호 안은 표준편차.

등간 척도 상에 표시되었으므로 t-검정으로 분석되었다.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쁨”과 “슬픔”을 체험하는 강도에 있어서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났다. 즉, 여성(M=3.34)은 남성(M=3.09)보다 “기쁨”을 더 강렬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p<.01$ ), “슬픔” 또한 여성(M=3.31)이 남성(M=3.10)에 비해서 정서 체험의 강도가 높았으며( $p<.05$ ), “공포”의 경우에도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경향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개별 정서에 따라 남녀간 정서성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Fabes와 Martin(1991)의 주장을 지지해 주는 것이다. 세대내의 성차를 분석한 결과, 자녀세대에서 여학생(M=3.13)이 남학생(M=2.79)보다 기쁨을 더욱 강하게 체험하며( $p<.05$ ), 부모세대에서는 어머니(M=3.12)가 아버지(M=2.82)보다 유의미하게 강한 “공포”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

한편, “기쁨”( $p<.001$ ), “슬픔”( $p<.001$ ), 그리고 “공포”( $p<.01$ )에서 모두 유의미한 세대차가 발견되었는데, 자녀세대보다 부모세대의 정서 체험의 강도가 높았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분노”에서도 나타났으나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동성간의 세대차를 살펴보면 아버지-남학생 비교에서는 아버지가 네 정서를 모두 강하게 체험하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기쁨”( $p<.001$ )과 “슬픔”( $p<.01$ )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여학생 비교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얻어졌는데, 어머니가 여학생보다 네 정서 모두를 강하게 체험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그 중 “기쁨”( $p<.01$ ), “슬픔”( $p<.01$ ), 그리고 “분노”( $p<.01$ )가 유의미하게 강하게 체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체험의 빈도, 지속시간, 강도에 대한 주관적 측정치의 분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뚜렷한 세대차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는 모든 정서의 빈도와 지속시간에서, 그리고 “분노” (자녀세대 평균=3.03, 부모세대 평균=3.18,  $p=.145$ )를 제외한 모든 정서의 강도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자녀세대는 부모세대에 비해 전반적인 정서 경험을 더 자주, 더 짧게, 더 약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같은 성(性)안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네 정서 전반에 걸쳐 분명하게 성차를 드러내는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서 강도의 경우 “기쁨”과 “슬픔”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공포”에서도 동일한 경향성( $p<.08$ )을 보였다. 세대내 성차로는 자녀세대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공포”의 지속시간은 유의미하게, “슬픔”과 “분노”의 지속시간은 유의미한 것에 가깝게 길게 나타났으며, “기쁨”을 유의미하게 강하게 체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세대에서는 “분노”에서의 성차가 두드러지는데 어머니는 아버지에 비해 “분노”를 더 자주, 강하게 체험하지만 지속시간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정서 유발 선행사건의 결과와 함께 관련하여 볼 때, 어머니들은 가족과 같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분노” 경험을 자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생리적 증상에 대한 분석

각 정서 상태를 경험할 때 수반되었던 생리적 증상들에 대한 응답자들의 응답 내용을 비교하기 위해, 각 항목에 대해 응답의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선행 연구자들(Gellhorn, 1970; Scherer & Wallbott, 1994)의 분석 방법에 따라, 각 반응 선택지들을 발산적 각성(ergotropic arousal), 보존적 각성(trophotropic arousal), 및 체감 온도(felt temperature)의 세 유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발산적 각성은 교감신경계와

표 5. 심, 세대에 따른 생리적 증상의 평균과 표준편차

생리적 증상	기쁨				슬픔				분노				공포			
	남	여	부	모	남	여	부	모	남	여	부	모	남	여	부	모
발산적 각성	.927	1.000	.518	.681	.588	.873	.894	.891	1.529	1.422	1.084	1.312	1.970	2.000	1.081	1.667
	(.982)*	(1.136)	(.825)	(1.018)	(.815)	(1.055)	(.964)	(1.043)	(1.190)	(1.124)	(1.139)	(1.053)	(1.348)	(1.231)	(1.082)	(1.134)
보존적 각성	.147	.318	.294	.606	1.015	1.540	1.177	1.739	.209	.508	.349	.667	.397	.766	.284	.536
	(.396)	(.643)	(.531)	(.691)	(.837)	(.820)	(.966)	(.863)	(.445)	(.780)	(.572)	(.799)	(.577)	(.831)	(.561)	(.911)
체감온도	.603	.794	.706	.606	-.074	-.191	-.129	-.185	.368	.266	.133	.172	-.254	-.333	-.095	-.250
	(.794)	(.722)	(.573)	(.676)	(.581)	(.503)	(.457)	(.553)	(.571)	(.570)	(.536)	(.564)	(.532)	(.568)	(.473)	(.557)

\* 괄호 안은 표준편차.

연관된 공격-회피(fight-flight) 반응, 즉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반응을 측정하는 것으로 호흡 변화, 심박증가, 근육의 긴장이나 떨림, 발한 등 네 개의 증상을 포함한다. 따라서 발산적 각성의 점수는 응답자가 표시한 항목들의 총수를 0점에서 4점까지로 환산한 것이 된다. 다음으로, 보존적 각성은 부교감신경계와 연관된 보존위축 반응, 즉 에너지 사용의 억제와 관련된 반응을 측정하는 것으로 목이 메임, 속이 좋지 않음, 울거나 흐느낌 등 세 가지의 증상을 포함한다. 따라서 보존적 각성 점수는 각 항목에 표시한 개수의 합, 즉 0에서 3점까지로 환산된다. 마지막으로 체감온도는 춥거나 떨림(-1점), 따뜻하고 기분 좋은 느낌(+1점), 뜨겁고 불이 달아오름(+2점) 등의 항목에 따라 점수화되었다.

위의 결과에서 우선 알 수 있는 사실은 몇 가지 생리적 반응들이 특정 정서에서 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발산적 각성 점수는 다른 정서에서보다 분노와 공포에서 높게 나타나며, 보존적 각성 점수는 슬픔에서 높게 나타난다. 또, 체감 온도는 기쁨과 분노에서는 양의 값을, 슬픔과 공포에서는 음의 값을 갖는다. 세 가지 증상들의 평균이 정서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 변인 모두  $p < .001$  수준에서 정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에 따라 각 증상들의 평균의 크기를 계획 비교(planned comparison)로 비교해 본 결과, 발산적 각성은 기쁨( $M = .755$ ) < 슬픔( $M = .821$ ) < 분노( $M = 1.321$ ) < 공포( $M = 1.660$ )의 순으로, 보존적 각성은 기쁨( $M =$

.361) = 공포( $M = .389$ ) < 분노( $M = .542$ ) < 슬픔( $M = 1.383$ )의 순으로, 체감온도는 공포( $M = -.129$ ) = 슬픔( $M = -.052$ ) < 분노( $M = .562$ ) < 기쁨( $M = .777$ )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Scherer와 Wallbott의 비교 문화 연구들(1986; 1988)에서 얻어진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생리적 증상들이 개별 정서에 따라 독특한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생리적 증상의 연구가 개별 정서에 따라 달리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각 유목들의 점수에 대한 집단별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성차와 세대차이가 발견되었다. 먼저 성차를 보면, 발산적 각성의 경우 “공포”에서만 여성( $M = 1.81$ )이 남성( $M = 1.50$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반응을 보였으며( $p < .05$ ), 이런 차이는 자녀세대(남학생 평균=1.97, 여학생 평균=2.00)에서는 볼 수 없었지만 부모세대(아버지 평균=1.08, 어머니 평균=1.67;  $p < .01$ )에서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의 발산적 각성의 점수가 자녀 세대의 점수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발산적 각성의 점수에서 전반적인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다소 의외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공격-회피 반응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중요한 반응이라 여겨지기 때문인데 젊은 세대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고, 부모세대에서도 오히려 아버지가 발산적 각성의 점수가 낮게 보고된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한편, 보존적 각성의 경우 뚜렷한 전반적인 성차가 발견되었는데, 즉 여성이 남성보다 “기쁨”, “슬픔”, “분노”, “공포” 등의 정서에 대해 유의

미하게 높은 반응을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이러한 추세는 각 세대내의 아버지-어머니, 남학생-여학생간의 분석에서도 유의미하게 얻어졌는데( $p < .05$ ), 단지 남학생-여학생의 “기쁨”의 경우에는 그러한 경향성을 보일 뿐이었다( $p < .08$ ). 마지막으로 각 정서에 대한 체감온도에서의 성차를 검증해 본 결과, 여성( $M = -.286$ )이 남성( $M = -.170$ )보다 “공포”를 더욱 차갑게 느끼는 경향성을 보였으며( $p < .07$ ), 세대별 성차를 분석한 결과 아무런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뚜렷한 세대차는, 발산적 각성의 경우, “슬픔”을 제외한 모든 정서에서 대학생이 부모보다 유의미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 좀더 자세히 보면, “기쁨”, “분노”, 그리고 “공포”의 정서에서 남학생이 아버지보다 유의미하게 많은 발산적 각성을 보고하였으며( $p < .05$ ), 반면 아버지는 “슬픔”에서 남학생보다 더욱 많은 발산적 각성을 보고하였다( $p < .05$ ). 이와 같은 세대차는 어머니-여학생사이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여성들은 나이에 따라 에너지의 발산과 관련된 생리적 반응에서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남성들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정서사건에 대한 에너지 발산적 반응이 약화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보존적 각성에서는 “기쁨”에서만 유의미한 세대차가 발견되었다. 즉, 자녀세대( $M = .229$ )보다 부모세대( $M = .458$ )가 기쁠 때 더욱 보존적 각성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p < .01$ ), “슬픔”의 경우에도 이러한 경향성이 보였다( $p < .06$ ). 각 성별로 세대차 검증해 본 결과, 아버지( $M = .294$ )가 남학생( $M = .147$ )보다 “기쁨”에서 보존적 각성을 높이 보고하는 경향성이 있으며( $p < .06$ ), 어머니-여학생 비교에서는 이런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어머니( $M = .606$ )가 여학생( $M = .318$ )보다 높은 보존적 각성 경험을 보고하였다( $p < .01$ ). 마지막으로, 체감온도에서의 세대차 검증을 실시한 결과, “분노”에서 유의미한 차이( $p < .05$ )를 보였는데 자녀세대( $M = .318$ )가 부모세대( $M = .153$ )보다 높은 체감온도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아버지-남학생간의 차이에서 얻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남학생( $M = .368$ )이 아버지( $M = .133$ )

보다 더욱 높은 체감온도를 보고한 반면( $p < .05$ ), 어머니-여학생 비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얻어지지 않았다.

생리적 증상에 대한 분석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아버지 집단의 생리적 증상에 대한 보고가 슬픔을 제외한 나머지 정서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타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로 아버지들이 정서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생리적 각성이 덜 발생해서, 혹은 생리적 각성의 발생과는 별개로 주관적으로 그렇게 느껴서, 혹은 생리적 각성을 경험하지만 기억을 왜곡하거나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거짓으로 보고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발산적 각성의 경우 남자 대학생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점수를 보고한 것이 실제로 생리적 차원에서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것은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이것은 발산적 각성 점수가 나타난다고 가정되는 교감신경계의 활성화 정도가, 남성의 경우 연령의 증가에 따라 약화되는 원인을 밝혀내는 연구가 될 것인데,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공격-도피 반응이 현대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과정을 포함할 것이다.

### 표현적 반응에 대한 분석

특정 정서를 경험할 때 응답자들이 어떠한 외부적 표현반응을 나타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해당 문항에 모두 표시하게 하였다. 표현적 반응은 다음과 같은 네 유목으로 나누어 분석되었는데, 1) 접근-회피 행동(movement behavior)을 사람을 회피하는 행동(-1점), 아무런 움직임을 표시하지 않음(0점), 사람을 향하여 움직임(1점)으로, 2) 비언어적 행동(nonverbal behavior)을 웃음/미소지음, 울음/흐느낌, 그 외의 얼굴표정변화, 소리지름/언성높임, 그 외의 목소리의 변화, 그리고 몸짓에서의 변화를 합산한 점수(0점에서 6점)로, 3) 유사언어적 행동(paralinguistic behavior)을 억양의 변화, 말을 잘 못함, 그리고 말하는 속도에서의 변화를 합산한 점수(0점에서 3점)로, 그리고 4) 언어적 행동(verbal behavior)을 침묵함(0점), 짧은 말(1점), 한두 문장(2점), 그리고 길게 이야기함(3점)으로 0점에서 3

표 6. 성, 세대에 따른 행동적 표현 및 언어적 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

표현적 반응	기쁨				슬픔				분노				공포			
	남	여	부	모	남	여	부	모	남	여	부	모	남	여	부	모
접근·회피행동	.147 (.432)	.270 (.447)	.071 (.258)	.170 (.378)	-.177 (.517)	-.254 (.507)	-.094 (.366)	-.087 (.410)	-.059 (.419)	-.094 (.387)	-.012 (.292)	-.011 (.346)	-.164 (.412)	-.159 (.482)	-.068 (.383)	-.071 (.486)
표현반응총점	3.662 (1.905)	3.889 (1.859)	2.659 (1.500)	3.734 (1.890)	2.000 (1.574)	2.333 (1.732)	2.365 (1.799)	2.848 (2.096)	2.662 (1.825)	3.797 (2.241)	2.795 (2.041)	3.344 (2.003)	1.716 (1.756)	1.905 (1.651)	1.230 (1.256)	2.357 (1.893)
비언어적 행동	1.618 (.864)	1.730 (.865)	1.259 (.693)	1.596 (.920)	1.000 (.669)	1.318 (.779)	1.188 (.838)	1.391 (.877)	1.132 (.809)	1.563 (.990)	1.000 (.870)	1.301 (.870)	.833 (.919)	1.000 (1.000)	.541 (.666)	1.060 (1.034)
유사언어적 행동	.765 (.813)	.937 (.821)	.588 (.603)	.915 (.799)	.441 (.608)	.556 (.667)	.647 (.719)	.891 (.845)	.677 (.762)	1.172 (.808)	.880 (.755)	1.161 (.936)	.537 (.745)	.587 (.687)	.446 (.577)	.810 (.814)
언어적 행동	1.279 (1.195)	1.222 (1.288)	.812 (.982)	1.223 (1.193)	.559 (.968)	.460 (.839)	.529 (.971)	.565 (1.072)	.853 (1.040)	1.063 (1.308)	.916 (1.181)	.882 (1.258)	.313 (.783)	.318 (.668)	.243 (.615)	.488 (.814)

\* 괄호 안은 표준편차.

점까지 평정하여 분석하였다. 언어적 행동 점수와 비언어적 행동 점수, 유사언어적 행동 점수를 모두 합하여 표현반응 총점을 구하여 전반적인 표현정도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구한 각 유목의 집단별 평균은 표 6에 제시되었다.

생리적 증상들과 마찬가지로 표현적 반응들도 정서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보였는데 예컨대, 접근·회피 행동은 정적 정서인 기쁨에서는 양의 값으로, 부적 정서인 슬픔, 분노, 공포에서는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슬프거나 두려울 때보다는 기쁘거나 화가 났을 때 말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이며, 슬플 때는 말은 적게 하지만 말 이외의 경로(비언어적 행동)를 통한 표현은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특성들에 대한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각의 반응 변인들은  $p < .001$  수준에서 네 정서에서 동일한 반응을 보인다는 가설을 유의미하게 기각하였다. 계획 비교를 이용하여 정서에 따른 각 반응 변인들의 평균을 비교해 본 결과, 접근·회피 행동은 기쁨과 나머지 세 정서에 유의미한 차이( $p < .001$ )를 보이며 슬픔( $M = -.143$ ) = 공포( $M = -.111$ ) < 분노( $M = -.039$ ) < 기쁨( $M = .158$ )의 순으로 높아졌다. 언어적 행동의 경우 공포( $M = .347$ ) < 슬픔( $M = .533$ ) < 분노( $M = .922$ ) < 기쁨( $M = 1.123$ )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사언어적 행동은 공포( $M = .604$ ) = 슬픔( $M = .656$ ) < 기쁨( $M = .797$ ) < 분노( $M = .981$ )의 순으로, 비언어적 행동은 공포( $M = .868$ ) < 슬픔( $M = 1.234$ ) = 분노( $M =$

1.237) < 기쁨( $M = 1.536$ )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러 경로를 통한 표현 반응의 합계인 표현 반응 총점의 경우, 공포( $M = 1.819$ ) < 슬픔( $M = 2.422$ ) < 분노( $M = 3.140$ ) < 기쁨( $M = 3.455$ )의 순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t-검사를 실시한 결과, 운동 행동에서의 유의미한 성차가 “기쁨”에서 발견되었다. 즉, “기쁨”을 경험할 경우에 여성( $M = .210$ )이 남성( $M = .105$ )보다 타인을 향해 움직이는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 움직임에 있어서의 유의미한 성차는 다른 정서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며, 언어적 행동에서도 유의미한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모든 정서의 비언어적 행동과 유사언어적 행동에서 유의도 .05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성차를 발견하였는데, 즉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많은 간접적인 정서표현 반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 성차를 살펴보면, “기쁨”의 정서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접근행동을 더 적극적( $p < .05$ )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슬픔”을 제외한 모든 정서의 비언어적 행동에서도 여학생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한편, “기쁨”의 언어적 행동에서는 남학생이, “공포”의 언어적 행동에서는 여학생이 각각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유사언어적 행동에서는 모든 정서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뚜렷한 성차는 부모 세대에서 대부분 나타나지 않았지만, “슬픔”과 “분

노”의 비언어적 행동과 “분노”의 유사언어적 행동에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표현 반응 총점에서는 모든 정서에서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났다. 즉, 모든 정서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정서를 경험할 때 표현적 반응을 많이 한다고 보고하였다. 세대내의 성차를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분노를 체험할 때 표현 반응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비해 기쁨과 공포는 유의미하게( $p < .001$ ), 분노는 거의 유의미하게( $p = .074$ ) 많은 표현 반응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표현에 있어서는 비교적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성차에 대한 보고, 즉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높은 정서 표현성을 나타낸다고 보고된 선행 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자기보고를 통한 표현 반응의 조사에서도 뚜렷한 성차가 나타난다는 결론을 이끈다.

세대차이를 검증한 결과, 대학생들이 부모집단보다 “기쁨”의 비언어적 행동( $p < .05$ )과 “슬픔”의 운동행동( $p < .05$ )에서 유의미하게 많은 표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는 자녀보다 “슬픔”의 유사언어적 행동( $p < .01$ )에서 비교적 높은 표현성을 보였다. 한편, 세대별 성차를 분석해 본 결과, 남학생이 아버지보다 “기쁨”의 언어적 행동( $p < .01$ )과 비언어적 행동( $p < .05$ ), 그리고 “공포”의 비언어적 행동( $p < .05$ )에서의 표현 반응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전반적인 표현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여학생의 비교에서는 많은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슬픔”의 경우에 한하여 여학생( $M = -.254$ )이 어머니( $M = -.09$ )보다 유의미하게 더 강한 회피적 움직임( $p < .05$ )을 보인 반면, 유사언어적 행동에서는 어머니( $M = .891$ )가 여학생( $M = .556$ )보다 유의미하게 강한 표현성을 보였다( $p < .01$ ). 표현 반응 총점에서는 기쁨과 슬픔의 경우 뚜렷한 세대차를 보였는데 자녀들은 부모들에 비해 기쁨의 표현 반응을 많이 하는 것으로( $p < .01$ ), 부모들은 자녀들에 비해 슬픔의 표현 반응을 많이 하는 것으로( $p < .05$ ) 보고하였다. 특히 기쁨의 표현 반응에서 나타나는 세대차는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아버지=2.66, 남자대학생=3.66)가 반영된 것이며, 어머니와 딸들 간의 표현

반응의 차이는 어느 정서에서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 성격 변인들에 따른 정서반응 분석

성과 세대에 따른 정서 체험, 생리적 반응, 표현적 반응의 차이의 연구가 정서 경험의 집단간 변산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면 성격 변인들에 따른 정서 경험에서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개인간 변산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와 관련된 안정적인 지속적인 개인차를 측정하는 도구들인 정적 및 부정 정서성 측정척도(PANAS;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자아탄력성 척도(Ego-Resiliency Scale), 정서 표현성 척도(Emotional Expressivity Scale)를 포함시키고, 각 검사 결과 상위 25%와 하위 25%에 해당되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정서 경험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들에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정적 정서성(Positive Affectivity; PA)에서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을 비교해 본 결과, “기쁨”의 비언어적 행동에서 유의미한 집단간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정적 정서성이 높은 집단( $M = 1.843$ )이 낮은 집단( $M = 1.478$ )에 비해서 기쁨을 느낄 때 비언어적인 표현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p < .05$ ). 또한 “슬픔”의 지속시간에 대한 분석에서 정적 정서성에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상위집단이 하위집단에 비해 슬픔을 더 오랫동안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

부적 정서성(Negative Affectivity; NA)의 경우에는 상위집단이 하위집단보다 “공포”의 유사언어적 행동 표현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p < .05$ ). 또한 “슬픔”의 접근-회피 행동에 대한 분석 결과 상위 집단( $M = -.229$ )과 하위 집단( $M = -.038$ )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는데( $p < .01$ ) 즉, 부적 정서성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슬픔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더욱 회피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성이 밝혀졌다.

한편, 정서표현성의 상-하위 집단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쁨”의 보존적 각성 반응과 “슬픔”의 접근-회피 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상위집단이 하위집단보다 더 많은 “기쁨”의 보존적

각성을 보고하였으며( $p < .05$ ), “슬픔”을 경험할 때 더 많은 회피적 반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 마지막으로 자아탄력성의 상위 및 하위집단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기쁨”의 경우 상위집단이 하위집단보다 체감온도를 더욱 뜨겁게 느꼈으며, 비언어적 행동 또한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

### 성, 세대, 및 가족 단위에 대한 추가 분석

본 연구의 부차적인 목적은 정서의 체험, 표현, 및 생리적 각성 등의 주관적 보고에서 나타나는 집단간 차이가 성격 변인에서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가 분석을 통해서 밝혀진 경향성들은 여러 이전 연구들에서 확인되었던 성차나 세대차와 같은 집단간 차이의 원인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포함된 성격 측정 도구들에 대한 응답 내용을 남/녀 대학생 집단과 아버지/어머니 집단, 및 가족 단위로 비교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정적 및 부정 정서성 척도(PANAS)에 대한 t-검증 결과, 정적 정서성에서 세대 차이가 유의미하였는데( $p < .05$ ), 부모 세대( $M=39.7$ )에 비해서 자녀 세대( $M=41.4$ )가 긍정적인 정서들을 더 자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정 정서성에 대한 분석에서는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보다 부정적인 정서들을 더 자주 경험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p < .06$ ). 하지만 남/녀 대학생 집단간이나 아버지/어머니 집단간에는 정적 및 부정 정서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정적 정서성 점수와 부정 정서성 점수간 상관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r=0.006$ , n.s.).

정서 표현성 척도(EES)에 대한 분석에서는 대학생 자녀 집단과 부모 집단간에 세대차이가 유의미하였고( $p < .01$ ), 여학생 집단과 어머니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 즉, 부모 세대의 평균 점수( $M=72.63$ )가 자녀 세대의 평균 점수( $M=68.82$ )보다 높고, 여대생 집단의 표현성 점수가( $M=68.91$ ) 남학생들의 점수와 크게 다르지 않는데 비해서, 어머니 집단의 정서 표현성 점수는 매우 높은 것으로( $M=74.11$ )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정서 표현성이 높다는 이전 연구들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의 높은 표현성이 반영되어 나타난 세대 차이가 성차보다도 더 뚜렷하게 나타난 점이 흥미로운 발견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아탄력성 척도에 대한 분석에서도 유의미한 세대차가 얻어졌는데( $p < .001$ ), 부모 세대에 비해서( $M=32.78$ ) 자녀 세대( $M=35.09$ )가 외부적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적절하게 기능하도록 자기 통제를 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세대 차이는 특히 여학생 집단( $M=35.87$ )보다 어머니 집단( $M=31.86$ )의 자아탄력성이 유의미하게 낮은( $p < .001$ ) 결과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 어머니 집단은 아버지 집단( $M=33.82$ )에 비해서도 자아탄력성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 이러한 결과는 자아탄력성 척도가 “나는 익숙한 장소에 가더라도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나 자신을 때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새롭거나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에 마주치는 것을 즐긴다”, “나는 새롭고 다양한 일들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등의 문항들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어머니들의 가정 생활이 상대적으로 단조롭고 따라서 새롭고 도전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낮을 수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자녀와 그들의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총 83가족의 자료를 가지고 가족 단위의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단위로서 한 가족은 자녀 한 명과 그들의 부모, 세 사람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정서의 빈도, 강도, 지속시간 등의 체험적 측면과 언어적, 비언어적인 정서 표현성 및 생리적 각성에 대한 주관적 보고 각각에 대하여 실시되었다. 각 변인들에 대해 가족간 변산이 가족내 변산보다 유의미하게 큰가를 기준으로 분석되었으며, 항목이 서열척도로 이루어진 경우 Kruskal-Wallis 분석을, 등간척도로 이루어진 경우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정서 유발 사건의 빈도에 대한 분석 결과,

동일 가족의 구성원들은 “기쁨” 유발사건의 발생 빈도( $p<.05$ )와 “슬픔” 유발사건의 발생빈도( $p<.001$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언어적 및 비언어적 정서 표현에 대한 가족 단위의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몇 가지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는데, “슬픔”과 “분노”를 느낄 때의 비언어적 표현 행동에 있어서 가족들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슬픔,  $p<.01$ ; 분노,  $p<.05$ ). “슬픔”은 유사언어적 표현 행동에 있어서도 가족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p<.05$ ), 이러한 결과는 가족 구성원들간에 “슬픔”이나 “분노”와 같은 특정 정서에 대한 공유되고 학습된 표현 규칙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정서의 생리적 각성 지표들에 대한 분석에서도 가족들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얻어졌는데, “분노”를 느낄 때 호흡이 빨라지고 심장박동률이 높아지는 등의 발산적 각성 지표에서 가족들간에 차이가 있었다( $p<.001$ ). “슬픔”의 발산적 각성 상태( $p<.05$ )와 “분노”의 보존적 각성 상태( $p<.05$ )에 있어서도 그러한 경향성이 나타났다. 생리적 변화에 대한 주관적인 자기보고 측정치들에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정서를 체험할 때의 피부 전도율이나 심장 박동률 변화에 대한 직접적인 측정치들을 가지고 가족별로 정서 체험의 유사성을 비교하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 종합 논의

본 연구에서 얻어진 몇 가지 흥미로운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차와 관련하여,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정서를 더 강하게 체험하고 더 많이 표현하며 생리적 각성 정도도 높았다는 이전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는 결과가 얻어졌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결과들이 모든 정서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정서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정서 체험에 따른 성차는 분노의 빈도, 공포의 지속시간, 기쁨과 슬픔의 강도에서만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즉 여성이 남성에 비해 모든 정서를 강하게, 자주, 오랫동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에 따

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반면, 표현에 있어서는 일관적인 성차를 볼 수 가 있는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조사된 네 정서에서 모두 더 표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의 체험과 표현 사이의 불일치를 보여주는 것인데, 여성이 체험에서보다 표현에서 더 일관적으로 높다는 것은 여성의 표현성에서의 우세에 영향을 미치는 체험이외의 다른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생리적 각성에 있어서는 발산적 각성에서는 주목할 만한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보존적 각성에서는 일관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발산적 각성을 공격-도피 반응, 즉 교감신경계의 활성화와 연관시켜 볼 때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일반적인 예상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다소 의외의 결과로 생각되며, 이것이 실제로 생리적인 각성 수준을 반영한 것인지, 다만 주관적인 보고에서만 그렇게 나타난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대 차이에 따른 정서 반응 양식에서의 차이도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이전 연구 결과들에 비해서 흥미로운 점은 성차에 비해서 세대차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즉, 자녀세대가 부모세대에 비해 일반적으로 정서를 더 자주, 짧게, 그리고 더 약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sup> 이와 같은 뚜렷한 세대차는 Diener 등(1985)이 언급한 대로 세대간의 생물학적 차이나 문화적 기대의 차이, 경험하는 생활 사건의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생활사건에서의 차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는데, 부모세대의 경우 자녀의 대학입학 등과 같은 타인의 성공이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 질병 등 정서를 강하게 유발하면서 자주 일어나지 않는 사건들을 기술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응답자들에게 가장 최근에 경험한 사건을 기술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시간적으로 거리가 있는 강한 정서를 유발하는 사건들을 기술한 것은 Diener 등(1985)의 지

2) 일반적으로 정서성에 대해 언급할 때 강도와 빈도, 지속시간이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데 위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이들 개념들 간에 보다 엄격한 구분이 필요하며, 따라서 정서성에 대한 정의도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적대로 실제로 부모세대들의 생활 사건들이 단조로워서 정서 경험을 자녀세대보다 적게 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정서 경험의 빈도에서의 차이가 아니라 기억에서의 차이, 혹은 보고에서의 차이일 수도 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유발 사건에 의해 정서 경험을 하고도, 이 사건이나 정서 경험 자체의 중요성을 작게 평가하여 관련 정보의 입력이나 인출 시 보다 강한 정서 경험만을 보고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연령에 따른 습관화가 정서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습관화가 사건에 대한 것이어서 정서 경험 자체를 줄이는 것인지, 정서 경험은 하지만 정서 경험 자체를 습관화하여 그것의 의미나 중요성에 대해 적게 평가하고 따라서 기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세대차와 관련한 특기할 만한 다른 결과는 정서의 생리적 각성 지표들에 대한 분석에서도 나타났는데, 아버지 집단의 발산적 각성 정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앞서 지적한 대로 발산적 각성의 정도가 성에 따라 차이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도 불구하고, 남학생들과 아버지들 사이에서는 유의미하게 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특히 어머니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발산적 각성의 정도가 전혀 낮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유독 아버지들에게서만 낮게 나타난 생리적 각성에 대한 주관적 보고 점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이미 Diener 등(1985)이 세대에 따른 생물학적인 차이가 정서 경험에서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을 하였지만 생리적 각성에 대한 주관적 보고가 낮은 이유를 실제로 정서 경험 시 생리적 각성 수준이 낮기 때문으로 볼 것인지 판단하기는 연구 방법상 한계가 있다. 정서 표현성에 대한 분석에서 나타난 흥미로운 결과는 자녀들이 부모에 비해 “기쁨”의 표현 행동을 더 많이 하고 부모세대는 “슬픔”을 더 많이 표현한다는 사실이다. 표현 반응 총점을 주관적으로 이해되는 전반적인 표현성으로 받아들인다면, 빈도, 강도, 지속 시간 등의 정서 체험에서의 차이와는 별개로 부모세대는 슬플 때 더 표현적이고, 자녀 세대는 기쁠 때 더 표현적이라는 결과는 새로운 연구 주제를

제시한다.

성격변인들에 따른 정서 반응 양식의 차이에 대한 분석에서 나타난 전반적 경향성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조사된 성격변인들은 정서적 경험과 관련하여 이렇다 할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다. 즉, 앞서 논의된 성이나 세대에서 볼 수 있었던 정서 체험, 생리적 각성, 표현 반응 등에서의 일관적인 집단 간 차이는 성격 검사들에서 발견되는 개인차 변인 즉 정치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것보다는 성차나 세대차로 인한 정서성에서의 차이와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외국 연구들과는 달리 성차에 비해 세대차가 뚜렷하게 나타난 이유와 관련하여 몇 가지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생활에서의 구체적인 정서 경험을 반영하기 위해 정서 유발 선행 사건을 기술하고, 이때 경험한 체험, 표현, 생리적 각성 정도에 대한 주관적 보고를 측정하였다. 따라서 정서 경험의 강도나 빈도, 지속시간, 그리고 표현 반응들과 생리적 각성 정도 모두, 정서를 유발한 선행 사건이 무엇인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정서를 유발하는 생활사건에 있어서 아버지들과 남학생들, 혹은 어머니들과 여학생들이 갖는 유사성보다 아버지와 어머니, 혹은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갖는 유사성이 크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선행사건에 대해 성간의 차이보다 세대간의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세대차가 성차보다 뚜렷하게 나타났을 수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우리사회가 갖는 문화적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정서적이고, 또 성숙한 성인은 쉽게 정서적으로 고양되지 않아야 한다는 기대가 존재하며 그것이 사회적으로 권장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기대가 정서 경험에서의 성차나 세대차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대는 서구 문화권에도 존재하지만 전통적인 유교 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강조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급변하고 전통적인 가치에 대한 강조가 힘을 잃어가면서 정서 경험과 관련된 전통적인 기대들도 영향력이 약해질 것인데, 부모세대들에게는 아직 전통적인 기대들이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 데 반해, 자



녀세대들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서경험과 관련된 세대간의 차이가 성차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다. 특히 표현 반응과 관련하여, 자녀세대는 기쁨에 대해 더 표현적인 데 반해 부모세대가 슬픔에 대해 더 표현적이라는 결과는 전통적으로 가족들의 성공에 대한 기쁨의 표현보다는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이나 아픔에 대한 슬픔의 표현이 보다 허용 내지는 권장되어 왔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로, 연구 대상의 선정의 문제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 집단과 그들의 부모 집단의 두 연령 집단만을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가 논의되었는데, 여러 연령 집단을 비교하거나 종단적 연구를 통해 연령에 따른 정서성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두 번째 문제는 사용된 검사도구와 관련된 것인데, 연구에서는 과거 정서 체험 회상에 대한 주관적 보고에 근거한 자료가 분석되었지만 생리적 각성 정도에 대한 직접적인 측정치들을 토대로 하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앞서 언급한대로, 정서 체험의 의식적이고 내성적인 자기보고 기법을 통해서 연구될 수 있고, 정서의 다양한 표현적, 생리적 측면에 대한 객관적 측정치들과 피험자들의 주관적 보고에서 얻어진 정서 체험의 내용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지만, 후속 연구에서 생리적 반응에 대한 객관적 측정치들과 자기-보고 측정치들의 비교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세 번째로, 본 연구에 포함된 성격변인 측정도구들의 선정이 정서성에서 발견되는 성차나 세대차의 원인을 밝히기에 부적절한 것들이었을 가능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 표현성이 자아탄력성이나 정적 및 부적 정서성과 높은 관련이 있다는 사전연구들에 근거하여 세 가지 성격 검사도구들이 본 연구에 포함되었지만, 이러한 성격 검사도구들에서 얻어진 결과가 성차나 세대차에 따른 정서성의 차이를 설명하기에 충분치 못하였으므로, 정서적 반응양식의 차이를 성격변인으로 설명하기 위

해서는 Bem의 성역할 척도(BSRI; Bem's Sex Role Inventory), Eysenck의 성격검사 척도, 정서 표현성 질문지(EEQ;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등의 다양한 성격검사를 포함하는 후속연구를 통한 체계적 검증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정서성의 차이를 가족 단위로 분석한 방법론상의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리적 각성이나 정서 표현성 등의 지표에 대한 분석에서 가족들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집단간 변산성 비교에 근거한 이러한 결과들만을 토대로 일반화된 결론을 내리기에는 미흡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들간에 특유한 정서적 분위기가 존재할 가능성이거나 가족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정서 표현 규칙이 존재할 가능성, 또는 그러한 가족 정서성이 학습을 통해 세대간에 전달될 가능성과 같은 흥미로운 후속 연구 주제를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이주일 · 황석현 · 한정원 · 민경환(1997). 정서의 체험 및 표현성이 건강과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 1, 117-140.
- Averill, J. R. (1968). Grief: Its nature and significance. *Psychological Bulletin*, 70, 721-748.
- Averill, J. R. (1980). A constructivist view of emotion. In R. Plutchik & H. Kellerman(Eds.), *Emotion, theory, research and experience*(Vol. 1, pp. 305-340).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Averill, J. R. (1982). *Anger and aggression: An essay on emotion*. New York: Springer.
- Averill, J. R. (1993). Illusions of anger. In J. T. Tedeschi & R. B. Felson (Eds.), *Social interactionist approaches to aggression and violenc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ciation.
- Averill, G. R. (1994). It's a small world, but a large stage. In P. Ekman, & R. J. Davidson(Eds.), *The nature of emotions: Fundamental questions*. NY: Oxford University Press, pp. 143-145.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Borke, H., & Su, S. (1972). Perception of emotional responses to social interactions by Chinese and American Childre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 7, pp. 481-489.
- Boucher, J. D., Bandt, M. E. (1981). Judgement of emotion: American and Malay anteceden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2, 272-283.
- Boucher, J. (1983). Antecedents to emotion across cultures. In S. Irvine & J. Berry(Eds.), *Human assessment and cultural factors*. (pp. 407-420). New York: Plenum Press.
- Brown, K., Covell, K., & Aberamovitch, R. (1991). Time course and control of emotion: Age differences in understanding and recognition. *Merrill-Palmer Quarterly*, 37(2), 273-287.
- Buck, R. W. (1979). Individual differences in non-verbal sending accuracy and electrodermal responding: The externalizing-internalizing dimension. In R. Rosenthal (Ed.), *Skill in nonverbal communication* (pp. 140-170). Cambridge, MA: Selgeschlager, Gunn & Hain.
- Campbell, A. (1981).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Recent patterns and trends*. New York: McGraw-Hill.
- Cicchetti, D. & Hesse, P. (1982). *Emotional Development*. San Francisco: Jossey-Bass.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Sandvik, E., & Larsen, J. (1985). Age and sex effects for emotional intensity. *Developmental Psychology*, 21(3), 542-546.
- Ekman, P. (1972). Universals and cultural differences in facial expressions of emotion. In J. K. Cole (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71* (pp. 207-283). Lincoln, N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Ekman, P. (Ed.) (1982). *Emotion in the human face (2nd ed.)*.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kman, P. (1984). Expression and the nature of emotion. In K. R. Scherer & P. Ekman (Eds.), *Approaches to emotion* (pp. 319-344). Hillsdale, NJ: Erlbaum.
- Ekman, P. & Davidson, R. J. (1994). *The nature of emo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Ekman, P., Friesen, W. V., O'Sullivan, M., Chan, A., et al. (1987). Universal and cultural differences in the judgments of facial expressions of emo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3, pp. 712-717.
- Ellsworth, P. C., & Smith, C. A. (1988). From appraisal to emotion: Differences among unpleasant feelings. *Motivation and Emotion*, Vol. 12, pp. 271-302.
- Ellsworth, P. C. (1991). Some implications of cognitive appraisal theories of emotion. In K. T. Strongman (Ed.), *International review of studies on emotion* (pp. 143-161). New York: Wiley.
- Fabes, R. A. & Martin, C. L. (1991). Gender and age stereotypes of emotional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7(5), 532-540.
- Field, T., & Walden, T. (1982). Perception and production of facial expression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In H. Reese & L. Lipsitt (Eds.), *Advances in child development and behavior* (pp.169-211). New York: Academic Press.

- Frijda, N. H. (1986). *The emo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ujita, F., Diener, E., & Sandvik, E. (1991). Gender differences in negative affect and well-being: The case for emotional intens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3), 427-434.
- Funkenstein, D. H., King, S. H., & Drolette., M. (1954). The direction of anger during a laboratory stress-inducing situation. *Psychosomatic Medicine*, 16, 404-413.
- Gaitz, C. M. & Scott, J. (1972). Age and measurement of mental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3, 55-67.
- Galati, D., & Sciaky, R. (1995). The representation of antecedents of emotions in Northern and Southern Ital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 26, No. 2, pp. 123-140.
- Gerver, E. (1986). Rage and obligation: Samoan emotion in conflict. In G. White & J. Kirkpatrick (Eds.), *Person and experience; Exploring Pacific ethropsychologies*.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ottman, J. H., & Levenson, R. W. (1993). *Male withdrawal from marital conflict*.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Gross, J. J., & John, O. P. (1998). Mapping the Domain of Expressivity: Multimethod Evidence for a Hierarchical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1), pp. 171-191.
- Gross, J. J., & Levenson, R. W. (1993). Emotional suppression: Physiology, self report, and exp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970-986.
- Izard, C. E. (1971). *The face of emotion*.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 Izard, C. E. (1977). *Human Emotions*. New York: Plenum.
- Jones, H. E. (1935). The galvanic skin reflex as related to overt emotional expression.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47, 241-251.
- Jones, H. E. (1950). The study of patterns of emotional expression. In M. Reymert (Ed.), *Feelings and emotions* (pp. 161-168). New York: McGraw-Hill.
- Jones, H. E. (1960). The longitudinal method in the study of personality. In I. Iscoe & H. W. Stevenson (Eds.), *Personality development in children* (pp. 3-27).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leinginna, P. R., & Kleinginna, A. M. (1981). A categorized list of motivation definitions, with a suggestion for a consensual definition. *Motivation and Emotion*, 5, 263-291.
- Klohn, E. C. (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5), 1067-1079.
- Kring, A. M. & Gordon, A. H. (1998). Sex differences in emotion: Expression, experience, and physi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3), 686-703.
- Lazarus, R. S., Averill, J. R., & Opton, E. M., Jr. (1970). *Towards a cognitive theory of emotion: Feeling and emotions*. (pp. 207-232). New York: Academic Press.
- Ledoux, J. E. (1986). Sensory systems and emotion: A model of affective processing. *Integrative Psychiatry*, 4, 237-248.
- Levenson, R. W., & Mades, L. L. (1980). *Physiological response, facial expression, and trait anxiety: Two methods for improving consistency*.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Psychophysiological Research.
- Levy, R. I. (1973). *The Tahitians, Mind and experience in the Society Island*. Chicago: University of

- Chicago Press.
- Levy, R. I. (1984). The emo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 K. R. Scherer & P. Ekman (Eds.), *Approaches to emotion* (pp. 397-412).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Lutz, C., & White, G. M. (1986). The anthropology of emotions.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15, 405-436.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Vol. 98, pp. 224-253.
- Matsumoto, D. (1989). Cultural influence on the perception of emotion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 20, No. 1, pp. 92-105.
- Matsumoto, D., & Ekman, P. (1989). American-Japanese cultural differences in intensity ratings of facial expressions of emotion. *Motivation and Emotion*, 13, 143-157.
- Mauro, R., Sato, K., & Tucker, J. (1992). The role of appraisal in human emotions: A cross-cultur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2, pp. 301-317.
- Mesquita, B., & Frijda, N. H. (1992). Cultural variations in emotions: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2, 179-204.
- Notarius, C. I., & Levenson, R. W. (1979). Expressive tendencies and physiological responses to 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204-1210.
- Panksepp, J. (1991). Affective neuroscience: A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neurobiological study of emotions. In K. Strongman (Eds.), *International reviews of studies in emotions*, Vol. 1 (pp.59-99). Chichester: Wiley.
- Plutchik, R. (1980). *Emotion: A psychobioevolutionary synthesis*. New York: Harper & Row.
- Plutchik, R. & Kellerman, H. (1989). *Emotion: Theory, research, and experience*. New York: Academic Press.
- Scherer, K. R. (1984a). Emotion as a multicomponent process: A model and some cross-cultural data. In P. Shaver(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pp. 37-63. Beverly Hills, CA: Sage.
- Scherer, K. R. (1984b). On the nature and function of emotion: A component process approach. In K. R. Scherer & P. Ekman(Eds.), *Approaches to emotion*, pp. 293-317. Hillsdale, NJ: Erlbaum.
- Scherer, K. R. (1986). Vocal affect expression: A review and a model for future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99, 143-165.
- Scherer, K. R. (1988a). Criteria for emotion-antecedent appraisal: A review. In V. Hamilton, G. H. Bower, & N. H. Frijda(Eds.), *Cognitive perspectives on emotion and motivation*(pp. 89-126). Pordrecht, The Netherlands: Martinus Nijhoff.
- Scherer, K. R. (Ed.). (1988b). *Facets of Emotion: Recent research*. Hillsdale, NJ: Erlbaum.
- Scherer, K. R. (1989). Vocal correlates of emotion. In H. Wagner & A. Manstead(Eds.), *Handbook of psychophysiology: Emotion and social behavior*(pp. 165-197) London: Wiley.
- Scherer, K. R., & Tannenbaum, P. H. (1986). Emotional experiences in everyday life: A survey approach. *Motivation and Emotion*, 10, 295-314.
- Scherer, K. R. & Wallbott, H. G. (1994). Evidence for universality and cultural variation of differential emotion response patter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2), pp. 310-328.
- Scherer, K. R. Wallbott, H. G., Matsumoto, P., & Kudoh, T. (1988). Emotional experience in cultural context: A comparison between Europe,

- Japan, and the USA. In K. R. Scherer(Ed.), *Facets of emotion: Recent research*. (pp. 5-30). Hillsdale, NJ: Erlbaum.
- Scherer, K. R., Wallbott, H. G., & Summerfield, A. B. (Eds.). (1986). *Experiencing emotion: A cross-cultural study*.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aver, P., Schwartz, J., Kirson, D., & O'Connor, C. (1987). Emotion knowledge: Further explorations of a prototype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1061-1086.
- Stipek, D., Weiner, B., & Li, K. (1989). Testing some attribution-emotion relation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109-116.
- Stock, W. A., Okun, M. A., Haring, M. J., & Witter, R. A. (1983). Age and subjective well-being: A meta-analysis. In R. J. Light (Ed.), *Evaluation Studies: Review Annual*(Vol. 8, pp. 279-302).
- Veroff, J., Douvan, E., & Kulka, R. A. (1981). *The inner American*. New York: Basic Books.
- Weinberger, D. A., Schwartz, G. E., & Davidson, R. J. (1979). Low-anxious, high-anxious, and repressive coping styles: Psychometric patterns and behavioral and physiological responses to stres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8, 369-380.
- Wilson, W. (1967). Correlates of avowed happiness. *Psychological Bulletin*, 67, 294-306.

## **Variations in Emotion Response Patterning across Genders, Generations, and Personality Types**

**Kyung-Hwan Min, Ji-Hyun Kim, Suk-Hyun S. Hwang, & Seung-Min Jahng**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variations in emotion response patterning according to differences in sex, generation and personality variables. The questionnaire based on Wallbott and Scherer(1994)'s was constructed and also included were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PANAS), Emotional Expressivity Scale(EES) and Ego Resiliency Scale. The subjective experience, expression and physiological arousal of emotional event were investigated. Specifically, the analyses included antecedent event, frequency, duration, and intensity of the experienced emotions, as well as physiological and expressive responses, to four basic emotions, namely joy, sadness, anger, and fear. Besides sex and generation, further analyses were performed on the emotional responses according to the personality variables and within-and-between family comparisons. The results revealed that significant sex and generational differences exist in emotional response patterning. Specifically, clear generational differences in frequency, duration, and intensity of emotional experiences were found. Furthermore, variations in physiological responses, approach-withdrawal behavior, nonverbal, paralinguistic, and verbal behaviors to all four emotions were found to exist according to sex and generational differences.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personality measures and within-and-between family comparisons were presented.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and the implications for future investigations were discussed.